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tvN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시즌2

김현정

<식샤를 합시다> 시즌2(이하 <식샤2>)를 ‘오락적인 드라마’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이때의 ‘오락적’이라는 수식어를 풀어쓰자면 ‘고민하지 않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데, 가령 화면 가득 담긴 음식의 모습과 듣기만 해도 입맛을 다시게 되는 소리들로 보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드라마의 ‘먹방’ 장면이라든지 서사(narrative)와는 별개로 순간적인 웃음을 선사하는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 그리고 제작진의 ‘남시질’에 미끼로 사용되는 의문의 옥탑방 청년 등이 그 근거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식샤2>가 드라마가 끝난 뒤에 어떤 질문과 고민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철저히 ‘소비’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나도 이 드라마가 오락적이고 소비적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니다. <식샤2>의 시끌벅적한 유쾌함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숨어있다. 식구(食口)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주인공

옆집 여자의 손을 잡고 “이 손, 앞으로 절대 안 놓을 거라고요”라는 다짐을 하며 국내 최초의 ‘먹방’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시즌1(이하 <식샤1>)을 마무리했던 구대영(윤두준 분)은 그 손을 놓고 세종특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가 세종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세종시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롭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보험왕’이 되고 싶은 보험설계사 구대영은 딱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식샤1>의 인물들은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삼각관계에 얽히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드라마 등장인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을까? <식샤1>의 주인공은 구대영도 이수경(이수경 분)도 아닌 그들이 먹는 음식, 그 자체였다. 구대영을 비롯한 인물들은 드라마의 주인공인 음식이 누군가로 인해 먹힐 때에야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했다. <식샤1>은 음식 먹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의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식샤2>는 어떠한가. 만약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전히 음식이었다면 구대영이 이 샷집을 쫓는 곳 역시 전주나 부산 같은 ‘맛있는’ 지역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구대영이 새로 찾아가는 곳은 다름 아닌 세종시다. 세종시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혼자 산다.’ 두 번째 시즌에서도 여전히 음식과 먹방은 이 드라마의 주요한 신 스틸러(scene stealer)이자 화젯거리이지만 더 이상 주인공의 자리에 있지는 않다. <식샤2>의 주인공은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다.

관계를 잃고 혼자가 되었네

이전 시즌에 비해 한층 더 다채로워진 <식샤2>의 인물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들을 대변한다. 그들의 연령대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아우르며, 그들이 혼자 살게 된 이유 역시 제각각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1인 가구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드라마에 적절히 반영된 대목이다.

구대영이 이사한 세종빌라에는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 1층 이점이 할머니(김지영 분)와 하루 빨리 결혼해서 1인 가구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구대영의 새로운 옆집 여자 백수지(서현진 분), 영문 모를 이유로 (극 중 인물들은 중반까지 고아로 알고 있었다) 옥탑에 살고 있는 이주승(이주승 분)이 있다. 그리고 세종빌라 주민은 아니지만 지방 발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 공무원 이상우(권율 분)와 “나도 올라가고 싶는데 못 올라가, 서울. 나 여기서 돈 벌어야 돼”라고 술주정을 하는 기러기 아빠 임택수(김희원 분)도 1인 가구로 등장한다. 이들이 1인 가구라는 것, 즉 혼자 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혼자라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식사2>의 모든 인물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관계들을 상실했고, 그래서 그들은 외롭다.

그들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구대영은 말끔한 복장을 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화려한 언변과 타고난 친화력으로 어디서도 풀리지 않아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외제차는 부의 상징이기는커녕 고객 유치를 위한 투자(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이며, 그가 보험왕이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유는 자신의 학자금 대출과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함이다. <식사1>에서 그가 했던 자조와 한숨 섞인 한 마디는 그 역시 이 시대의 ‘삼포세대’임을 보여준다. “연애할 시간에 차라리 돈 벌고 빚부터 갚아야죠.”

반면, 구대영과 함께 삼각구도의 다른 한 꼭짓점을 맡은 사무관 이상우는 구대영과는 정 반대로,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부(富)는 무지(無知)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월세가 부담이라면 전세를 살면 되겠다.’는 말을 아무런 악의 없이 내뱉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무지이다. 하지만 그런 그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소문이 빠르게 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상우는 직장의 모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아올린다. 그는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된다.

구대영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식사2>의 삼각구도의 마지막 꼭짓점에 해당하는 백수지는 잃어버린 관계가 남들보다 더 많다. 그녀는 똥똥했던 과거 때문에 제대로 된 애인은커녕 친구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감도, 자기에도 없는 백수지는 과거의 트라우마(trauma)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가 잃어버린 관계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녀 스스로와의 건강한 관계다.

기러기 아빠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있지만 가족 자체를 잃어버렸으며, 옥탑방 청년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렸다. 잃어버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점이 할머니도 평생 동안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생활이 몸에 밴 탓에 그들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할머니는 손자 챙기듯 옥탑에 사는 이주승에게 밥을 해다 주곤 한다.

‘식사’로 이어지는 사람들

세종빌라의 주민들은 그동안 같은 건물에 살아도 남인 것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지내왔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현실적인 그 곳에 구대영이 등장한다. 구대영이 어떤 사람인가. 이점이 할머니의 대사를 빌려 설명한다. “넌살하고는 어디 가서 밥은 안 굶겼구먼.” <시즌1>에서는 첫 회부터 옆집 여자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던 그가 <시즌2>에선 옆집, 아랫집 가리지 않고 얼굴을 들이민다. 이사 떡을 돌리고 살갑게 대화를 이어나간다. 하늘에 제각각 떠있는 별처럼 혼자였던 세종빌라 주민들은 구대영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의 별자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때 이음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사, 아니 ‘식사’이다.

같이 밥을 먹는 행위인 식사는 이 드라마에서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된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식사가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지속시키는 관계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1회에서 구대영의 주도로 세종빌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 같이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장면은 앞으로 그들이 서로에게 식구 같은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옥상에서 숨어 살던 이주승의 존재가 발각된 이후, 아래층 할머니가 손수 백숙을 끓여 이웃들과 같이 먹게 하는 장면에서는 이주승 역시 그들의 식구이자 이웃으로 자리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기러기 아빠 임택수가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역시 혼자 밥을 먹고 있던 여자와 합석한 장면은 그들의 외도를 세련된 방식으로 예고한다. 관계의 상실로 인한 외로움을 호소하던 인물들은 식사를 통해 서서히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해 간다.

또한 같이 밥을 자주, 만족스럽게 먹는 사이일수록 관계가 견고해진다. 이는 특히 구대영-백수지-이상우로 이루어진 삼각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극의 후반까지 공식적인 애인 사이였던 백수지와 이상우의 관계는 이미 둘의 식사 장면들에서 그 미래가 예견되었다. 백수지가 이상우와 처음으로 같이 먹은 음식은 분자요리였다. 하지만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은’ 식사를 하고 나서 그녀가 정말로 맛있게 먹은 것은 구대영에게 받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떡볶이였다. 그것도 구대영과 함께 말이다. 그 다음에도 백수지는 이상우와 바닷가재를 먹고 나서 생전 처음으로 배탈이 났고, 그녀가 이상우를 위해 준비한 김밥은 먹기도 전에 상해버렸다. 제작진은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지’ 못할 사이라는 걸 시청자에게 꽤나 노골적으로 알려준 것이다.

반면, 구대영과 백수지는 상황이 다르다. 둘은 라면을 끓일 때 스프부터 넣을 건지, 면부터 넣을 건지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매번 부딪히지만, 음식을 좋아하는 것부터 좋아하는 음식 까지도 잘 맞는 사이이다. 그들은 서로 옆집에 사는데다 식성도 비슷하다보니 드라마의 시작부터 많은 음식을 함께 먹어왔다. 둘 사이에는 이상우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식사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식구가 필요한 시대

자,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이 드라마에 식구라는 중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식구는 왜 중요한가? 일상에서 식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는 가족이 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식구(食口)는 먹을 식(食)과 입 구(口)로 이루어졌다. 가족(家族)은 집 가(家)와 무리 족(族)이 합쳐진 단어다.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무리’라는 의미로 집단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라면, 식구는 ‘(함께) 먹는 입’이라는 뜻으로, 집단의 구성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개인적인 단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식구는 같은 곳에서 먹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다. 식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변하는 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사회는 변하는 중이 아니라 이미 변화한 상태다. 돈이 없어서든 혼자가 좋아서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500만 명이 넘는다. 1인 가구가 주인공인 <식사를 합시다> 시리즈는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개인주의는 지금보다 더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뒤로 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혼자 사느냐 마느냐

냐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사느냐, 어떤 게 건강한 개인주의냐다. 정답은 없고 좋은 답은 있다. ‘집단주의에 매몰되거나 은둔주의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2>의 인물들은 같은 건물에 모여 살지만 서로의 가족은 아니다. 그들은 서로 결혼하지도 않았고 서로의 부모나 자식도 아니다. 그저 옆집, 윗집, 아랫집에 사는 이웃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구가 된다. 혼자이지만 더 이상 혼자만은 아닌 생활을 하게 된다. 어떤 이는 말도 안 되는 판타지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웃과 식사를 하고 가족이 아닌 식구를 만드는 일이 정말 판타지인가? 그런 상황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게 된 현실이 더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누구나 다 구대영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어느 날은 혼자인 게 외롭다면, 눈인사만 하던 옆집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이, 식사를 합시다.